

## 설기현 통쾌한 데뷔골

### 세필드전 전반 강력한 왼발 슈팅 레딩이적후5경기만에..평점 7

‘스나이퍼’ 설기현(27·레딩FC)이 마침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트렸다.

설기현은 16일(한국시간) 밤 영국 세필드 브래몰 레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5차전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 오른쪽 윙 포워드로 5경기 연속 선발출전해 1-0으로 이기고 있던 전반 25분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린 뒤 후반 21분 브린야르 군 나르손과 교체됐다.

이로써 설기현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레딩FC로 이적한 뒤 5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트리면서 본격적인 골 사냥에 시동을 걸었고, 시즌 개막 이후 5경기에서 1골 2도움의 ‘특급 고공비행’을 이어 나갔다.

이날 레딩은 전반 11초 만에 터진 케빈 도일의 벼락같은 선제골과 전반 25분 설기현의 결승골을 앞세워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고 후반 16분 세필드의 스트라이커 헬스에게 1골을 내줘 2-1로 이겼다. 레딩의 올 시즌 첫 원정경기 승리가자 기분 좋은 2연승.

원정경기 승리에 목마른 레딩을 위한 날이었다. 세필드의 주전 골키퍼가 갑자기 빠진 행운을 안고 경기에 나선 레딩은 킥오프와 함께 중앙선에서 보비 콘베이가 찰리 존 패스를 이어받은 도일이 수비수 두 명을 뚫고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전반 11초에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레딩은 이어 전반 16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쏘아 올린 제임스 허퍼의 슈팅이 왼쪽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아쉬움 속에 추가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순간 설기현이 레딩의 추가골 해결사로 나섰다. 설기현은 전반 25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레오리 리타가 살짝 내준 볼을 이어



설기현이 16일 밤 영국 세필드 브래몰 레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 출전해 전반 25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받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있게 따돌린 뒤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세필드의 왼쪽 골대를 세차게 흔들었다.

한편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www.skysports.com)은 16일

치러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5차전 레딩FC-세필드 유나이티드전에 결승골을 터트린 뒤 후반 21분 교체아웃된 설기현에게 “좋은 골을 넣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종범 안타쇼

### 4타수 3안타 3타점 ‘노장투혼’ 발휘

### KIA, 두산과 DH 1차전 승·4위 고수

◇17일 잠실경기

KIA

0 0 0 0 3 0 0 1 0 1 | 5  
0 0 0 0 0 0 0 0 0 0 | 0

두산

▲승리투수=그레이서머(13승12패)

▲패전투수=김명제(11패)

KIA가 4강행 길목에서 ‘만형’ 이종범의 ‘말티 안타쇼’에 힘입어 4강 경쟁상대 두산을 완파했다.

전날 두산에 6-2로 승리한 KIA는 17일 잠실시 계속된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5-0으로 승리, 4위 자리를 유지했다.

1차전 선발 그레이서머는 7이닝 2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시즌 13승(12패)를 올리자 ‘만형’ 이종범이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1차전은 KIA의 ‘발 야구’가 진가를 발휘한 일전이었다.

0-0으로 팽팽한 ‘0’의 행진이 계속되던 4회.

KIA는 1사 후 볼넷으로 출루한 이용규가 김원섭 타석 때 도루에 성공, 공격의 물꼬를 텄다. 이후 KIA는 장성호의 볼넷으로 1, 2루의 기회를 이어갔고 이재주 타석 때 더블 도루에 성공, 2사, 3루의 찬스를 엮어냈다.

다음타자 이재주의 볼넷으로 2사 만루를 만든 KIA는 이현곤의 내야 안타로 선취 1점을 올렸다.

KIA는 계속된 2사 만루서 ‘만형’ 이종범의 좌측 펜스를 맞는 큰지막한 2루타로 2점을 보태 승부에 계기를 박았다. KIA는 7회에도 2사 2루서 이종범의 적시타로 1점을 더한 뒤 9회 1사 1루서 장성호의 우전 안타와 상대 수비 실책을 엮어 1점을 추가했다.

한편 KIA는 지난 16일 잠실 두산전서도 8회 이현곤의 3점짜리 홈런포에 힘입어 6-2로 승리했다.

이날 한기주는 5회 김진우를 구원 등판, 3이닝 동안 무실점(볼넷 2개) 호투하며 시즌 9승(11패)을 따냈다.

/집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7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KIA전 더블헤더 1차전에서 5회초 2사 만루때 KIA 이종범이 우중간 2타점 2루타를 치고 난 후 환호하고 있다. /N-POOL중앙일보=양광삼 기자

## 환상의 페어 아이스쇼



17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2006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에서 불가리아의 덴코바와 스티비스키가 서로 눈을 가린채 환상의 페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베어백호, UAE와 한 조

### 베이징올림픽 2차예선 조추첨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올림픽대표팀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같은 조에 속했다.

베이징 올림픽 8강 진입을 목표로 한 한국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2차예선 조추첨에서 UAE와 우

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전 승자, 예멘-팔레스타인전 승자 등과 함께 F조에 편성됐다. 한국 등 상위 14개팀은 2차 예선부터 출전하고, 하위 20개팀이 내년 2월7일과 14일 1차 예선을 벌여 승자 10개팀이 2차 예선에 합류한다.

2차 예선은 24개팀이 6개 조로 나뉘어 내년 2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풀리그를 치르고, 각조 상위 1, 2위 팀이 최종 예선에 오른다.

## 전남, 성남전 무승부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전기리그 1위 성남 일화를 상대로 힘겨운 무승부를 따냈다. 전남은 17일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

린 성남과의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후기 5차전 원정경기서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올 시즌 성남전 무패행진(1승2무)을 이어간 전남은 1승2무2패를 기록하며 9위 자리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에서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전남)과 김용대(성남)가 지킨 양 팀 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날 경기는 성남이 주도했지만 매끄러운 패스 연결과 한 박자 빠른 볼체리로 결정적인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날려보지 못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성남 이따마르와 경고 한 차례 있었던 전남 박재홍이 충돌해 팔꿈치로 가격한 박재홍이 퇴장을 당했고, 이따마르는 경고를 받는 등 양팀 모두 큰 소득없이 전력 손실만 입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워싱턴 내셔널스 소리야노 ‘40홈런-40도루’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의 슬러거 알폰소 소리야노(30)가 역대 3명밖에 달성하지 못했던 40홈런-40클러에 4번째로 가입했다.

소리야노는 17일(한국시간) 워싱턴 R.F.K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밀워키 브루어스와 홈경기에서 플타자로 출장, 1회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펠리페 로페스 타석에서 2루를 홈쳤다. 전날까지 홈런 45개를 때렸으나 39도루에 묶여 있던 소리야노는 이날 도루를 추가, 대망의 40-4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소리야노는 지난 2002년 41도루를 성공했으나 홈런이 39개에 그치는 바람에 아깝게 40-40클럽 가입이 좌절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